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정확히 10년 전에 그는 첫 번째 EP 음반(싱글 음반과는 달리 여러 곡이 담기지만 정식 ‘앨범’ 보다는 수록 곡 수가 적은 ‘미니 앨범’)을 발매했다. 이 음반에 담긴 ‘에릭스 송’(Eric’s Song)이라는 영어로 쓰인 노래의 맨 마지막 가사에 ‘광주’(Gwangju)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부분 가사를 간단히 번역하자면 이렇다. “당신의 세계에 컬러를 넣으세요. 친구들을 넣으세요. 그리고 광주를 넣으세요.” “당신의 세계”는 대체로 안감성(‘컬러’)과 교감(‘친구들’) 그리고 공감(이루어지는 장소(‘광주’)에 의해 완성된다는 뜻임) 것이다.

그런데 왜 ‘광주’일까? 노래를 만들고 부른 그가 광주 출신이기 때문이라. 어린 시절부터 광주에서 판소리와 가요급 병창을 공부한 그는, 판소리 전공을 포기하고 재수 끝에 불문학 전공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학내 록그룹의 보컬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어쿠스틱 기타를 든 싱어송라이터가 되었다. 한국 민요(판소리) 전공을 공부하다가 서양 민요 혹은 초국적 민요(포크 음악)를 전공하게 된 셈이다. 다소 촌스럽게 표현하자면, 그는 ‘광주가 배출한’ 한국 대중음악계의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광주가 배출

그는 무명 가수가 아니다

한’이란 표현은 물론 세련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많은 음악가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수도권 중심주의적 풍토에서 자신의 데뷔 음반 노래 가사 속에 ‘광주’라는 단어를 세겨 놓을 정도로 ‘자기 서사’에 정직한 음악가에게 붙일 수 있는 정당한 수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첫 EP 음반 발매 직후 2011년에 ‘EBS 스페이스 공감’의 신인 발굴 프로그램인 ‘헬로 루키’에 선정되었다. 2012년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음악 기획사에서 초청을 받아 유럽에서 라이브 공연을 이어가기도 했다.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에는 영국의 유명 포크 음악 페스티벌의 초청 뮤지션이 되었고, 2015년과 2018년에는 한국대중음악상 중 ‘올해의 음악인’ ‘올해의 포크앨범’ 등 각종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 이 정도면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이름을 알린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임을 인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직접 기타 반주를 하며 주로 영어로 부르는 그의 노래는, 고음에서 가성으로 미세하게 꺾는 시김새가 아이리시 포크송의 향취를 풍기지만 판소리의 흔적도 지울 수 없다. 듣기에 따라서는 서양 클래식의 발칸토 창법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창법의 결합이 그의 음악이 갖는 독특한 코스모폴리탄적 성격을 규정해 준다. 자신의 유니크한 스타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이후로서인지, 2017년에 발표한 ‘하이랜드’나 ‘기야와 같은 노래’에는 사실상 노골적인 남도민요 창법이 담겨 있다.

방송이나 음악회 진행에도 능한 그는 개관 초기의 ACC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광주 MBC’에서 기

획한 ‘아트 아시아’ 프로그램의 MC를 맡기도 했다. 올해에도 그는 8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양림동에서 ‘커밍홈’ 프로젝트 라이브 공연을 아홉 차례 진행했다. 김사월, 선우정아, 요조, 장필순 등의 가수들이 그의 고향인 광주에 초대되어 그와 함께 대화하고 노래했다. 이 라이브 시리즈는 코로나 여파에도 실제 청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유튜브로 라이브 생중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과 함께 그는 ‘우정의 정원으로’라는 공동작사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명의 음반이 발매되었다.

그를 ‘무명 가수’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까지 얘기해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독자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외화내번의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길이란 현재 아이돌 팝이나 트로트 아니면 오디션밖에 없다. 딱 채운 10년 동안의 음악 활동에서 총여덟 장의 정규·비정규 음반을 발매한 그가, 현재 방영중인 JTBC의 ‘무명 가수’를 위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싱 어게인’에 참가자로 출연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는 이름 대신 ‘64호 가수’로 불리며 1라운드를 통과했지만, 팀 경연이었던 2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이름 없이 참가번호로만 불리다가 탈락하는 순간에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게 되어 있다. 그의 이름은 ‘최고은’이다. ‘유방’이나 ‘무방’이나 판단을 오직 중앙 미디어의 권력에 내맡기는 게 앙상한 한국 음악 생태계의 현실이지만, 그의 고향 광주에서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요컨대, 최고은은 무명 가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기고



강석웅
전남남도교육감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2020년 세밑, 한 해를 되돌아보니 정호승 시인의 ‘봄 길’이라는 시가 떠오른다.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1년을 고스란히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2020년 전남 교육’을 응축하고 있는 듯하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사계절은 무의미했다. 오직 코로나의 계절만 있었을 뿐,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온통 코로나19에 묻혀 버렸다. 그 속에서 우리 교육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물리치기 위해 ‘비대면’의 일상이 강요되면서 미래가 갑자기 찾아왔다. 그리고, 그 미래와 1년을 동행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전남 교육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위기를 미래 교육의 희망으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했다. 길이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 스스로 ‘봄 길’이 되어 위기를 헤쳐 왔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 아이디어로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어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

코로나 시대 전남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로

며, 오직 아이들이 바라보며, 아이들이 중심에 놓는 교육을 위해 힘껏 달려왔다.

갑자기 시작된 원격 수업이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해준 선생님들 덕분에 무난하게 현장에 안착시켰다. 전남의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은 ‘전남교실ON.com’이라는 원격 수업 플랫폼을 만들어 전남을 넘어 국내, 나아가 해외까지 명성을 떨쳤다. 전남 교사 일곱 명이 만든 이 플랫폼은 누적 뷰 200만여 건을 세계적 사이트로 성장해 기획재정부가 편찬한 ‘코로나19 극복 사례’에 실려 세계에 소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추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고교성과 학교밖 청소년 비대면 학습 지원금 등도 전국적 찬사를 받았다.

전남 교육이 비록 변방에 위치해 있지만, 그 역동성과 자율성, 그리고 작은 학교가 많은 특성을 잘 살린다면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도 발견했다. 전남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연 속에 있어 감염병 예방에 유리하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자연 속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효과적인 인성 교육을 할 수 있고, 개별 맞춤형 교육도 한결 용이하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내년 3월 이번 서울의 초·중학생들이 전남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유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암울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성취감을 가진 것은 2020년 전남 교육의 가장 큰 성과이다. 코로나 시대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잦은 등교 제한과 원격 수업 전환으로 빚어진 학습 결손, 학습 격차, 기초 학력 부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어쩌면 영원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미래 교육의 모델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늘 강조했듯, 언제나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 올 한 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전남 교육 현장의 노력들이 미래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일러준다. 전남 미래 교육의 청사진도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2021년은 그 원년이라 할 수 있다. 2021년의 변화는 더욱 거셀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대전환기가 도래할 것이다.

전남 교육은 이처럼 중요한 2021년에 교육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네 가지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 학력 책임교육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 학교’를 육성해 공교육 혁신의 거점으로 삼고, 넷째, ‘조직 문화와 행정 혁신’으로 위기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전남 교육이 역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도록 모든 교육 가족과 함께 새로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상금 없는 ‘광주 문화예술상’ 재고해야 한다

해 나갔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되었으며, 수상 다음 해에 기념 초대전과 기념 공연, 기념 문집 발간에 소요되는 지원금도 지급되었다. 그런데 이후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규정을 들어 상금을 없애 버린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전통적인 예술의 고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 제정하여 시상하는 이상들은 그 이름값에 부합하는 권위와 가치를 지녀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시상금이 없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천되는 후보자의 숫자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수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네 개 부문에 후보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금이 없는 상이라는 데에 있지 않을까 한다.

각 지역에서 예술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예술가의 이름을 딴 예술상은 많다. 그러나 상금이 없는 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 지역 문화 부문의 상만 국한해서 봐도 그렇다. 문인 이름을 딴 문학상인 강진오의 ‘김영랑 시문학상’(상금 3000만 원), 고흥의 ‘송수권 문학상’(3500만 원), 곡성의 ‘조태일 시문학상’

(2000만 원), 순천시의 ‘김승옥 문학상’(8000만 원), 담양군의 ‘송순 문학상’(3000만 원), 나주시의 ‘백호 임재 문학상’(3000만 원), 해남의 ‘고산(윤선도) 문학상’(2000만 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하나 더 들어 보겠다. ‘동리 목월 문학상’은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리·목월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문학상으로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박목월을 기리는 상이다. 소설만을 대상으로 한 김동리 문학상은 1998년부터 ‘김동리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시상해 왔었다. 한때 제11회부터 기존의 김동리 문학상을 동리 문학상으로 하고, 시 부문 목월 문학상을 신설해 함께 시상하고 있다. 초기 상금은 10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7000만 원이라고 한다.

반드시 상금의 액수에 따라 상의 권위와 명예가 비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상들과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본적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향이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시행하는 상이요, 광주가 낳은 훌륭한 예술가들의 이름을 내세운 상들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은 권위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도를 전반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 아닌가.

社說

고령 환자 급증 전남 병상 확보 서둘러야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하루 감염 환자가 8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더 큰 문제는 고령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이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고령일수록 코로나가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환자 통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어제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누적 사망자는 모두 80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438명(54.2%)으로 가장 많고 70대 236명(29.2%), 60대 94명(11.6%) 등으로 전체의 95%가 60대 이상 고령자다. 반면 0세에서 29세까지 확진자(누적 1만 4752명) 중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치명률 역시 고령일수록 치솟았다. 사망자 수를 확진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치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

상으로 15.6%에 달했다. 이는 100명이 확진되면 16명이 사망한다는 의미다. 또한 30대 0.04%, 40대 0.09%, 50대 0.28%, 60대 1.05%, 70대 5.28%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치명률이 높았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 19일 이후 8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고, 22일과 24일에는 36명까지 늘어나는 등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요양원의 집단 감염으로 고령 환자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 병상도 여분이 두세 개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해졌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이제 중증 전담 병상 확보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시민들도 올 연말연시에는 동거하는 가족 이외의 모임은 취소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잠시 미루는 게 좋겠다.

서구 ‘특혜 관행’ 꼬리만 자르고 넘어갈 건가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불법 정주처 단속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했다. 또한 이를 감시해야 할 의원들은 오히려 부정청탁을 입삼았다. 고작 몇 만 원의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한 부정행위가 수년 동안 관행처럼 계속되어 왔다.

얼마 전 광주일보에 이러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를 보면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주 공무원들의 불법 정주처 과태료 무단 면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위해 확보해 간 2018년부터 올 11월 18일까지의 과태료 무단 면제 기록 228건 가운데 140건의 자료가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법 삭제됐다고 인정했다.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현직 구의원 2명(3건), 5급 공무

원 8명(10건), 퇴직공무원 14명(18건), 6급 이하 60명(82건), 공무원-기간제 16명(20건) 등 총 70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서구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확보해 간 자료와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도 이 같은 특혜가 관행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직접 무단 면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과태료 무단 삭제를 요구하는 청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인정된 뒤 적당히 꼬리만 자르고 넘어가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서구청은 지금이라도 조사 기간과 대상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마지막 트럼펫 소리가 울리고, 우리가 돌무덤 속에 누워 있을 때, 나는 당신에게 물어누우며 속삭일 거야. ‘로비, 로비. 우리 저 소리 못 들은 거야’라고.” 오스카와 일드의 무덤에 쓰인 이 묘비명(墓誌銘)은 누군가 ‘죽음’에 대해 물을 때마다 오스카가 농담처럼 말해 왔던 이야기를 옮겨 놓은 것이다.

‘심판의 날’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명의 천사가 일곱 개의 트럼펫을 차례로 부는 장면이 나온다. 묘비명에 쓰인 ‘마지막 트럼펫’은 ‘세상을 멸망시킬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바르 그 트럼펫이다.

오스카는 천재적인 작가답게 세상이 멸망하는 순간, ‘돌무덤 속에 함께 누운 세상 연상의 동성 애인 로비에게 몸을 돌려 속삭이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죽음보다 깊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것이다. 오스카가 ‘동성연애’ 죄로 무려 2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한 뒤 영국에서 추방돼 프랑스 파리에서 비참한 삶을 마쳐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묘비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라는 영국 언론의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전 세계에서 ‘성 소수자’를 상대로 진행되어 온 ‘가혹하고도 무차별적인 박해’는 그러나 최근 들어 점차 사라져 가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커밍아웃한 바 있는 동성애자 피트 부티지지를 교통장관으로 발탁하면서 그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되는 느낌이다.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바이든의 라이벌이기도 했던 부티지지는 지난 2015년 사우스벤드트리뷰이라는 지역신문 칼럼을 통해 자신이 게이(gay)라는 사실을 밝혔었다. 그 당시 “(그런 단순한 사실) 나의 갈색 머리칼

처럼 삶의 진실이며 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까지 수년간 갈등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성 소수자라는 사실은 내가 문사나 총을 다루거나 회의록 주관하고 고용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성 소수자를 비롯해 ‘단순히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세대는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는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홍철기 정치부장 redplane@

기고



임원식
시인·한국예총광주연합회 회장

얼마 전 ‘2020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있었다. 문학(박용철 문학상, 김현승 문학상, 정소파 문학상), 미술(허백련 미술상, 오지호 미술상), 국악(임방울 국악상)으로 나누어 여섯 개의 본상과 세 개의 특별상이 마련되었다.

이번에는 정소파 문학상, 허백련 미술상 본상, 오지호 미술상 특별상, 임방울 국악상 특별상에 후보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각 분야에서 다섯 명의 예술가들만이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 시상하는 이상들은 상금이 없다. 문학은 저서 발간, 미술은 전람회 개최, 국악은 공연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약간 있을 뿐이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은 1992년 ‘오지호 미술상’을 제정한 이래 허백련 미술상(1995), 박용철 문학상(2000), 임방울 국악상(2000), 김현승 문학상(2013), 정소파 문학상(2013)을 제정해 차례로 확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2-0649	222-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227-9600	220-0551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220-0536	02-773-9331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